

“공천적합도 조사 선점하라” 민주당 예비후보들 총력전

조직책 풀 가동 비상대기...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선거운동 제한 ‘한숨’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출마 자들에 대한 공천적합도 여론조사가 2일부터 시작되면서 각 후보 캠프는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공천신청자를 접수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후 정채성(15%)·기여도(10%)·의정활동능력(10%)·도덕성(15%)·공천적합도조사(40%)·면접(10%)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쯤 컷오프 대상자를 발표하고 경선자를 결정한다.

경선은 2인 경선이 원칙이지만 변별력이 없을 때는 3인 경선으로 실시한다.

당내 규정상 자체분석에서 후보자간 격차가 20% 이상 발생하거나 공관위에서 매긴 점수가 30점 이상 차이가 나면 단순공천지역으로 분류된다. 경선은 당원 50%, 선거구 주민 50%로 치러진다.

따라서 후보들은 공천심사 기준에서 가장 비중이 큰 적합도 조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적합도 조사 시기는 2일부터 시작해 4~5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후보 캠프는 조합도 조사 2~3일 전부터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조직 총 동원령을 내리는 등 이번 적합도 여론조사 대응에 나섰다.

전남지역 모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적합도 조사에서 어떤 성적표를 얻느냐가 공천 경쟁의 향배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요 조직책들을 불러 모아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오는 여론조사에 잘 응대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대면접촉이 어려워지면서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후보들과의 악수는 커녕, 명함받는 것도 꺼려함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크게 적은 피켓을 들고 눈 인사와 목례만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하고 있다.

세월이 차원에서 예정됐던 선거사무소 개소식마저도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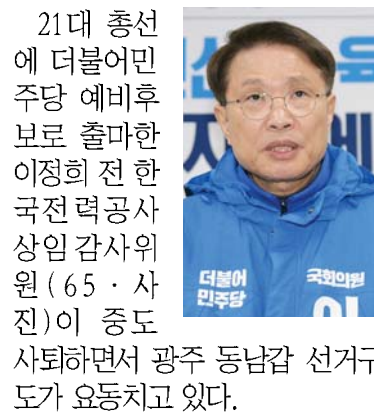
민주당 광주시당도 지난달 31일 각 예비후보자들에게 긴급 공문을 보내 ‘상가 방문이나 유권자 악수 등 대면접촉을 중단하고, 개소식 또는 선대위조직 발대식과 같은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는 행사 개최도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광주의 한 예비후보자는 “적합도 조사가 코앞인데 선거운동이 사실상 개편 휴업상태”라며 “SNS를 통해 열심히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상대의 반응을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21대 총선 광주 동남갑 경쟁자. 장병완 대한신당 의원과 민주당 후보로 나선 최영호 전 광주남구청장, 윤영덕 전 청와대 행정관, 서정성 광주 남구의회사회장.

‘지지율 담보’ 이정희 사퇴에 광주 동남갑 판세 ‘요동’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정희 전 한 국전력공사 상임 감사위원(65·사진)이 중도 사퇴하면서 광주 동남갑 선거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정희 전 상임감사는 지난 31일 사퇴 성명서를 통해 “지역사회의 분열을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위해 후보자 사퇴를 결심했다”며 총선을 포기했다. 이 전 상임감사의 사퇴는 측근

전 광주 남구청장은 청장 재임 시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에 기소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지율은 쉽게 오르지 않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에 불과했다.

여기에 최 전 구청장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본격 경선에 나섰고 서정성 남구의 사회장도 지난달 9일 뒤늦게 출마를 선언하는 등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다.

최근 남구에서 가장 조직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모 인사가 이 전 상임감사 선거 캠프에 결합하면서 반동을 노렸으나 결과

이 전 상임감사는 사퇴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후보 단일화’ 등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

남은 예비후보들은 15%가 넘는 이 전 상임감사의 표가 어디로 쏠릴지 선택이 분주하다. 경쟁자간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표만 잘 잡아도 대역전극이 가능하다.

지역정가에서는 이 전 상임감사의 조직과 표가 민주당 특정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쏠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이 전 상임감사의 선거 조직이 선두를 달리는 최영호 전 구청장에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전 상임감사와 최 전 구청장이 오랜 친분이 있고 선거 경쟁도 적대적이지 않아 가능한 경우의 수이긴 하지만 내부 상황은 다르다.

이 전 상임감사 선거캠프 스태프 중에는 “최영호를 지지하겠다”며 나선 ‘안티 최영호’ 세력이 꽤 있어 결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다고 서정성 예비후보나 윤영덕 예비후보 쪽으로 움직이기도 쉽지 않다. 공천적합도 조사 등에서 컷오프될 가능성이 있고 유력 주자인 최 전 구청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움직이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이 전 상임감사 조직은 각자도생 형태로 분산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이 전 상임감사가 사퇴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나 후보단일화를 내세우게 아니어서 선거구도는 선불리 예상하기 어렵다”며 “어느 한쪽으로 결합하는 건 불가능하고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임을 달리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실용적 중도 정당’ 창당 선언

‘모호’ 지적에 “무식하다” 반박 자신감 드러내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혁신 언론인 간담회에서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일 △탈이념 △탈지역 △탈지위를 기치로 한 ‘실용적 중도 정당’ 창당 선언을 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 의원회관에서 ‘안철수 신당’ 창당 비

전 발표 및 언론인 간담회를 열었다.

안 전 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신당의 실용적 중도라는 정치노선이 모호하다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 “옛날 이념에만 사로잡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

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최선의 해결 방법이 무엇이 파악하고 대화와 합의를 통해 실행하는 것이 실용적인 중도의 모습”이라며 “이것을 모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식하거나, 아니면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신당의 규모에 대해선 “다른 거대 정당도 그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며 “국민의당 창당 때도 3월 정도에 구체적인 목표 등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대부분 언론에서는 40석 정도 목표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목표를 이뤘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4번째 창당에 대한 각오와 관련, “기존의 낡은 정당에서 새로운 일을 하기는 불가능해 졌다며 “물론 거기(바른미래당)에서 투쟁하면서 만들어가는 것도 새로운 선택이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 새로 만드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제대로 정치를 바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비전 발표에서는 △이념과 진영 정치의 극복 △기존 정당의 틀과 관성의 파괴 △무책임 정치의 퇴출을 목표로 한 신당 비전을 선언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파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